



발행처 : 독도사수연합회 <http://dokdomk.com>
 발행일 : 2011년 1월 15일 발행인 이상훈 편집 윤예준
 사무실 : 609-809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사동 105-22
 사무실 : TEL. 070-7659-7118. FAX. 051-522-7118.
 대 표 : E-mail : ds5ean@paran.com
 HP.010-6504-6510

독도소식지 4호를 내면서

독도소식지 3호를 내고 3개월이 지나고 해가 바뀌었습니다. 좀 더 좋은 내용을 내려고 하지만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참여가 더 좋은 독도소식지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이 글을 보시는 당신도 독도의 주인입니다. 주인이 지켜야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독도사수연합회

“노래로 전하는 독도 사랑” 서화와 함께하는 특별한 음악 수업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것을 노래를 통해 전 세계에 전하는 서희 씨가 김천초등학교에서 독도사랑을 전하는 특별한 음악 수업을 실시했다. ‘서희와 함께하는 독도사랑 파워콘서트’가 김천 교육지원청 에서 주관하여 11일 김천초등학교 강당에서



최영훈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4~6학년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콘서트는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1시간여 동안 이루어졌고, 박인호 씨 작사·작곡의 '독도는 우리 땅'과 '독도를 아시나요'를, 서희 씨가 직접 부르고,



가사를 꼼꼼히 짚어서 역사의식을 다지게 이끈다. 또한, 수업 중에 어린이들은 '독도는 우리 땅'의 첫 소절인 '울릉도 동남쪽 뱀길 따라 이백리'를 통해 독도의 지리를 배우고, 가사 내용으로 독도의 역사, 독도바다 생물의 생태 등에 대해서 공부하는 유익한 시간으로 이루어졌다. 독도사랑 파워콘서트는 지난 6월 인천 능내 초등을 시작으로 김천초등학교는 52번째 학교로 선정되어 진행됐고, 앞으로도 독도사랑을 마음에 여는 노래를 통해 전국 초등학교 돌며 진행할 계획이다. (이하 삭제)

서희의 국어. 영어. 스페인어. 일본어.
4개 국어 독도노래 학교에서 가르쳐라

“독도수호 위해 명예 주민증 발급”

경북도는 독도 명예주민증을 실효적 지배를 굳건히 하기 국민의 역량을 모으기 위해 발급한다. 울릉군이 법과 조례를 거쳐 주민증 발급을 시행한다. 한국인과 외국인이 독도에 들어가거나 배를 타고 관광한 뒤 독도명예주민증 발급 신청하면 독도에 입도했는지 확인을 거쳐 명예주민증 만들어준다. 권오영 경북도 독도수호과장은 “국민들의 독도 영토의식을 높이고 국내외에 독도사랑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해 명예주민증을 발급키로 했다”며 “방문객이 많이 발급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터넷 신청도 된다. (요약해서올림)
자세한것 독도사수대뉴스게시판 3401글참고

“日” 우파 “독도 맞대응 위해 도리시마 개발을”

일본 해양문제 연구지에 도리시마를 “EEZ 기점 삼아 韓 논리 반격” 중국과의 ‘센카쿠(尖閣, 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충돌’을 계기로 입김이 강해진 일본 우익들이 독도 무력화 논리를 펼치고 있다. 일본의 우파 해양문제연구가인 야마다 요시히코(山田吉彦) 도쿄이(東海)대학 교수는 10일 일본의 ‘슈간 포스트’ 최신호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다케시마(독도) 문제로 대립하는 한국에 대해선 도리시마(鳥島)를 개발해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거점으로 삼는 전략으로 맞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암시를 기점으로 삼을 경우 일본의 EEZ은 약 3만6000km가 늘어나게 된다. 야마다 교수는 “이 섬에 부두를 만들고 낚시꾼을 위해 물고기를 방류하고 양식 어업을 하는 등 경제생활을 할 수 있는 이용 환경을 정비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사람도 거주시켜야 한다”면서 “한국이 (이에 대해) 클레임을 걸어오면 그 때야말로 국제해양법 조약을 기초로 다케시마를 기점으로 한 한국의 EEZ 설정에 대해 단념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터넷 요약)
독도사수대 카페 독도뉴스 게시판 3402번글 참고 하세요

도리시마가 섬이 될 수 있나

도리시마는 제주도 남쪽 이어도에서 동쪽으로 276km, 일본 류슈 나가사키 최 서쪽 히라도항에서 남서쪽으로 200km가량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암초. 남녀군도 서쪽 20km 지점에 위치 총면적이 불과 50㎡. 정도이며 파도가 치면 정상까지 물이 올라 갈 정도다. 독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비교하고 인정한다는 발상자체가 국수주의자인 비양심적인 일본인이 아니면 도저히 생각 도 못하는 주장이다.
독도소식지 2호 5면에 도리시마 문제가 있으며 더 자세한 것은 독도사수대 독도질문과 답변 84번 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독도를 이름 없는 섬으로 계속 방할 건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독도를 검색하면 독도를 ‘독도’ 나 ‘Dokdo’ 라고 표기한 지도는 전혀 찾을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글의 위성지도 영상 서비스인 구글어스를 통해 독도를 검색하면 ‘리앙쿠르암’ 으로 표기돼 있고, 영문판 구글 지도에는 아예 독도가 아무 이름도 없는 섬으로 나타나 있다. 심지어 구글 한글판 지도에도 지정만 표시될 뿐 ‘독도’ 명칭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구글 지도에서 ‘독도’ 는 존재하지 않는 섬인 것이다. 이 같은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간단하다. 일차적으로 ‘독도’ 에 대한 구글의 잘못된 인식 때문이다. 그러나 구글이 독도에 대해 개념 자체가 없다고 비판하거나 무성의를 탓하기에는 부족하다. 이를 바로잡으려는 정부의 관심이나 의지가 없다는 점이 이런 사단이 벌어지게 한 가장 큰 요인이다. “구글이 독도를 竹島(죽도·다케시마)로 표기하고 있다” 는 본지 16일자 보도에 네티즌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은 구글에 대한 비판과 함께 그동안 정부 차원의 홍보와 시정 노력이 부족한 데 대한 불만이다. 사전에 이를 파악해 바로잡으려는 움직임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정부가 손 놓고 있는 사이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는 구글이나 야후 지도에는 ‘독도=한국땅’ 임을 알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이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나서서 문제를 제기할 경우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손 놓고 있다는 것은 차원이 다른 얘기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정부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시정을 요구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상대방이 스스로 알아서 오류를 바로잡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착각이다. 민간단체를 통한 그 어떤 방식이든 간에 정부가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해시켜야 한다. 그래야 이런 오류를 막을 수 있다.

Copyrights© 1995-, 매일신문사 每日新聞

이메일 용 '구글지도', “'독도대신' '다케시마'?”

인터넷 사이트 구글이 자사의 지도 서비스에서 독도를 다케시마의 한자어 표기인 '竹島'로 표기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며 국내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독도'검색결과에 한국과 일본 네티즌들은 제각기 "독도, 한국의 아름다운 섬", "독도는 한국 땅", "일본 고유의 영토 다케시마. 한국정부가 불법으로 점거중", "국제사회에 다케시마가 일본 땅이라는 것을 알리지"며 경쟁적으로 독도사진을 등록하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뉴스 요약)
독도사수대 카페 독도뉴스 게시판 3402번글 참고 하세요

부산 초량, 정발장군동상앞, 일본영사관집회현장



독도사수연합회 <http://dokdomk.com>

수신자(처) 부산에 있는 애국단체장님께
참 조 관련 부서장과 회원님들
계 목 10월25일 독도척령 제정일 제110주년 기념식 참여 요청

1. 부산지방에서 불철주야 애국 애족에 수고하시는 귀 단체가 무궁한 발전을 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2. 저희 단체는 부산시 중구 중앙동에 사무실을 두고 일본의 독도 침탈 음모를 막고 지키려는 단체입니다.
3. 부산에 있는 애국단체들이 1900년 10월 25일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칭한 대한제국척령 제41호가 제정 된지 110주년 기념하여 대한제국척령 제41호의 역사성을 기리는 것은 물론, 기념식을 통해 국내외에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역사적 근거를 통해 알리고 또한 독도의 주권국으로 위상을 강화하고 대내외적으로 독도수호의지를 표명 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귀 단체와 함께 기념식을 하려고 합니다.
4. 현수막에 귀 단체의 이름을 공동주관으로 올리고 귀 단체장님과 회원님들이 함께 기념식을 하려고 하니 귀 단체의 뜻을 속히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일시: 2010년 10월 25일 14시 정각
장소: 부산 초량동소재 정발장군동상 앞

독도사수연합회
회장 이상훈



시련 2010-10-07
우편번호: 600-013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3가 14-1번지 2층 (재일은행 옆)
전화: 070-0133-9490, 전선: 070-0906-9490, 팩스: 010-6604-0610, 이메일: ds@sean@paran.com

독도마트 독도마트 수입금 일부는 독도사수연합회 기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http://dokdomart.com>

고종황제 독도척령 41호 제정 110주년 기념식 및 독도사수 결의대회

부산에 있는 애국단체들이 1900년 10월 25일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정한 대한제국척령 제41호가 제정 된지 110주년 기념하여 대한제국척령 제41호의 역사성을 기리는 것은 물론, 기념식을 통해 국내외에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역사적 근거를 통해 알리고 또한 독도의 주권국으로 위상을 강화하고 대내외적으로 독도수호의지를 표명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부산에 있는 여러 애국단체들에게 죄책의 문서를 팩스로 전송을 하였으나 참여한 단체는 현수막에 올라간 단체와 그 외에 신약회원 분들이 참석을 하셨다. 김영구 고려연구소 소장님의 격려사로 독도척령 관계를 더욱 잘 알게 되고, 대한민국 상훈회, 신옥균 회장님의 격려사로 한번 더 독도 침탈야욕을 분쇄하는 계획적이고 실천적인 전 국민 봉기의 행사로 이어지는 독도 사랑 독도 지키기 운동이 전개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이었다. 독도를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자연과 유기농” 회사의 서상학 대표님께서 갈색떡살을 보내주시고 대구 비룡 라이온스 회장님과 회원님들이 최초 태극기를 주셔서 각 단체에 하나씩 나누고 구미 독도의병대는 국회에서 기념식 준비로 바쁜 가운데 부산의 활동에 신경을 써 주심을 무한히 감사드립니다. 떡을 하나씩 나누고 애국자 여러분은 헤어지며 일본의 독도침략을 막아 낼 것을 모두가 다짐 하였을 것으로 생각 합니다. 내년2월22일 일본이 소위 “D케시마의날” 행사를 규탄 하는 행사를 다시 합시다. 일본의 주장을 묵인 하는 것이 된다는 국제 법 학자들의 말씀을 생각 하면서, 독도 사수연합회

부산 서면에 지오플레이스라는 아주 큰 건물이 있다. 영화관, 예식장, 찜질방, 쇼펜스타, 대형 할인매장등 없는 것이 없다. 이 건물 이은규 회장님이 1020호를 전기세도 받지 않고 독도연합회 사무실로 주신 것이다. 지금은 본회 고문으로 활동을 하시는 중이다. 고문님이 본회 자금 마련을 위해 노력도 하시고 행복 나눔 터 라는 회사를 만드시어 실업자



고용 창출도 하시고 중고 물품과 폐품을 재활용 하게 하시니 일석삼조의 효과를 보게 하시는 분이시다. 전에는 일방통행로 관계로 교통에 불편 한 점도 있었지만 이제는 양방통행이 되어서 지오플레이스에 가는 교통이 좋아졌다. 본회사무실은 상근 직원 관계로 중앙동으로 이전을 하였지만 지오플레이스의 발전을 비는 마음에서 이 글을 적는 바이다.
독도사수연합회장 독도 이상훈

정부, 독도 영유권 유공자 첫 포상 추진

정부가 독도 영유권 수호 유공자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포상을 추진한다. 외교통상부는 최근 영유권 공고화 유공자로 최서면 국제한 국연구원장과 고(故) 백중현 서울대 교수를 선정하고 정부포상 대상자 공개검증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최 원장은 국민훈장 2등급(모란장)이 수여되고 고(故)백 교수는 3등급(동백장)이 추서될 전망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독도 영유권 공고화를 위해 학계에서 오랫동안 헌신적으로 활동해온 최 원장과 고인이 된 백 교수에게 우선적으로 포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독도 영유권과 관련해 공로를 세운 분들에게 지속적으로 포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략 삭제.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독도사수대 독도소식지에 실릴 자료 44번 글 참고) 검토 작업을 진행하며 독도 영유권 공고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001년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일한의원 연맹회장을 지내며 한-일관계 증진에 기여해온 모리 요시로(森喜朗) 전 일본 총리에 대해 수교훈장(광화대장)을 수여하기로 하고 공개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인터넷 뉴스 요약)

요리모시로 전 일본총리는?

2000년 9월 19일 일본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한 총리인데 우리정부는 수교훈장을 검토 한다는 말인데 말이 되는 소리인가? 누구의 입에서 나온 말인지? 정부의 관계자가 의심스럽다. 모리요시로의

서지 학자 사운 故 이중학 관장

1996년 울릉군이 부지를 제공하고, 건물은 삼성문화재단이 건립하였고, 소장 자료는 서지학자 사운 故이중학 선생께서 울릉군에 기증했다. 1997년 8월 개관한 독도박물관은 독도수호 전진기지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박치를 가하고 있다. 독도 박물관 초대 관장이신 이중학 선생님이 독도영토수호에 근대인물중에는 1인자 일 것으로 나는 생각 한다. 우리정부는 사운 선생님의 공적을 공개 검증 해 보기를 바란다. 독도사수연합회

http://cafe.naver.com/docdoinkorea.cafe

독도 시민단체 독도 선비 활인을 해주면?

독도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분들 상당수 있다. 전 국민에 비례하면 없는 거나 마찬 가지지만, 우리나라민들은 지켜야 된다는 생각은 있지만 나서는 사람은 거의 없다. 나를 아는 분이 자기 가 좋아서 독도운동 한다고 말 하는데 내 생업도 포기 하면서 독도운동을 하는 것 좋아서가 아니다. 부끄럽지 않은 조상이 되기 위함이다. 그래서 독도를 많이 왕래 한다. 형편이 어려워 부담이 많이 가는 선비에게 경비를 적게 들도록 하여 내 집 드나들게 정부와 경북도 울릉군 선박회사(주)가 해결 해주시기를 바란다. 2000년 본적을 독도로 이전 하고 8번씩이나 다녀온 "부산에 독도 이상훈"

독도 망언이 있고 우리 대통령 항의도 없었던 것은 목인을 한 것이 된다. 강력한 정부가 되기를 바란다. (독도는 우리 땅 협회 공식)

'독도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 땅' 한장총, 플래카드·포스터 부착운동 전개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는 18일 오전 서울 연지동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제27-3차 운영위원회회의를 열고 '독도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 땅' 플래카드 및 포스터 부착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한장총은 이를 위해 29개 회원 교단 총회에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 할 예정이다. (인터넷뉴스 요약)



"日" 러시아에 뺨 맞고 독도에 화풀이? 가능성?

센카쿠 열도 문제로 중국에 시달리고 있는 일본이 이번에는 러시아가 실효치배 하는 북방 영토(쿠릴 열도) 문제로 러시아에 능욕 당 했다고 아우성이다. 러시아의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11월1일 오전 쿠릴열도의 구나시리 섬을 전격 방문했다. 는 것이다. 일본이 받은 충격은 엄청났다. 간 나오토 총리는 즉각 고노 마사히라 주 러시아 대사를 일시 귀국 형식으로 소환하고, 러시아 정부에 엄중 항의했다. 그렇다면 러시아 대통령이 처음으로 북방영토에 간 이유는 무엇인가.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11월 1일 오전 사할린에서 소형 비행기로 갈아타고 구나시리 공항에 도착했다. 낫산 4륜 구동차를 직접 몰고 약 네 시간 동안 섬 내부를 둘러보았다. 러시아 정부가 책정한 '쿠릴 사회경제개발계획(2007~2015년)'의 진척 상황을 직접 점검한다는 명분이었다. 특히 러시아 측은 북방 영토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라고 법률까지 만든 것을 문제삼아 "2개 섬을 우선 반환한다는 일 소 공동선언 함의를 재고해야 한다"라는 강경론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에서 강경론이 분출하는 또 다른 이유는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량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북방 영토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법률을 제정한 직후 쿠릴열도에 대한 일본 기업의 투자를 정지시켰다.

일본의 자본 없이도 극동 지역을 충분히 개발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다. 일본 정부의 일관된 주장은 "옛 소련이 일방적으로 일 소 불가침조약을 파기하고, 북방 영토의 4개 섬을 무력으로 점령해 불법점거하고 있다"라는 것이다. 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사할린 이남과 쿠릴열도를 포기한다"라고 선언했지만, 북방 영토는 쿠릴열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일본은 북방 영토 담당 대신(겸임)까지 두고 있다. 현재 일본은 두 섬이라도 돌려 달라고 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 예나 지금이나 일본이 기댈 곳은 미국이다. 미국은 일본의 주장을 지지하고 있다. 미국 은 중국과 문제도 일본편이고 러시아문제도 일본 편이다. 그러나 일본 전문가들은 미국이 끝까지 편지지 미지수라고 지적 하면서, 미국은 오키나와의 후텐마 비행장 이전 문제를 손조롭게 풀어가기 위해 일본을 도둑겨려주는데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미국과는 후텐마 비행장 이전 문제, 중국과는 센카쿠 열도 영유권 문제, 러시아와는 북방 영토 문제를 안고 있는 일본의 외교 스트레스는 요즘 보통이 아니다. 일각에서 는 이런 때를 이용해서 일본의 우익 세력이 독도에 무단 상륙하는 퍼포먼스를 벌일지도 모른다고 경고한다.



[위 지역은 러.일 영토분쟁지역] 그렇지 않아도 일본 문부성이 중학교 학습지도 요령의 해설서를 개정함에 따라 2012년부터 '다케시마(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명기한 교과서가 등장할 예정이다. 이때쯤 대한해협에서도 큰 폭풍우가 몰아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말이다. (인터넷뉴스요약) 독도는 우리 땅 협회[공식]지면 관계상 뉴스를 요약 원문을 볼 분은 <http://cafe.naver.com/docdoinkorea.cafe> 독도에 관한 소식 게시판 3176번 글을 보세요. 일본 집회 장면 있고 러시아 대통령 구나시리 주민 만나는 사진 있어요

『1910년 韓日병합조약』 유효론과 獨島 領有權 문제

독도조사연구학회
2010년도 정기학술대론회 발표논문
김영구 (려해연구소) 2010-10-28

저작권자의 동의없는사용 할경우 법에 저촉됩니다

지난 9월,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센가쿠 열도(조어도) 인근 해상에서 일본 경비선 2척과 중국 어선의 접촉이 있은 후, 일본 정부가 중국 어선 선장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하면서 중국과 일본 간의 영토 분쟁이 열전(熱戰)의 상태로 들어갔으나 일본 정부가 중국인 선장을 석방함으로써, 양측의 대립이 일 단락 되는 모습을 보였다. 일부 언론들은 이번 일본의 백기(白旗) 항복(降伏)을 “아시아에서 일본시대가 공식적으로 막을 내리고 중국시대가 열렸음을 의미하는” 일대사건으로 해석하는 등 다소 성급하고 과장된 반응을 보였지만, 중일 간의 갈등과 대립은 더욱 심각하고 복잡한 모습으로 계속되고 있다. 이 중일 간의 영토 분쟁으로 인한 충돌과 대립 양상을 보는 한국 정부의 시각은 어떤 것인지 또 어떤 교훈을 도출해 내고 있는지는 아직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영토 분쟁에 있어서는 어느 나라나 현재 점유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갈등을 피하고자 하고, 영토를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나라는 갈등을 확대하려는 전략을 취하는 법이다.” “우리로서는 일본이 보여준 것과 같이 분쟁의 확대를 기술적으로 회피한 외교적 대응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고 하는 선에서 머무르고 있는 것 같다. 다시 말해서 한국이 현재 점유를 유지하고 있는 독도에 관한 한일간 영유권 분쟁에 있어서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취해온 “조용한 외교적 대응 전략”을 재확인하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이번 중일 간의 대립 충돌의 과정을 냉정히 분석해 보면 “분쟁의 확대를 극력 회피한다” 고 하는 일본이 먼저 중국 어선을 나포하였고 그 선장을 구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조치에 즉각적이고 강력한 항의를 제기하는 중국 정부의 모든 공세(攻勢)에도 불구하고 구속된 선장의 구속기간을 연장하면서 “일본 국내법에 따라 처리하겠다” 는 의지를 과시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일본은 국제사회를 향해서 사실상 조어도(센가쿠 열도)에 대한 그들의 영토 주권에 관한 법적 입장을 충분히 제시한 것이다. 사실상 10월 4일 벨기에 브뤼셀 ASEM 회의에서 회동(會同)한 원자바오와 간 나토오 간의 “좌담(座談)” 에서도 일본 총리, 간 나토오 측은 센가쿠 섬에 관한 일본의 영유권이 법리적 근거가 확실함을 과시했다고 하는 점을 주의 해야만 한다. (연재)



다음호에 계속 독도사수연합회. 논문보기에 전부있어요

독도 찾는 日 관광객 100명* 일본 정부 “한국 영유권 인정 소지 있다” 고 자제요청

일본 정부의 반대에도 해마다 약 100명의 일본인이 독도를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교도통신은 독도관리사무소의 집계를 인용한 기사에서 “한국이 실효적으로 지배 중인 독도에 연간 100여명의 일본인이 관광을 위해 방문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외무성은 자국민이 한국을 통해 독도를 방문할 경우 ‘한국의 관할권에 따르는 것으로 한국의 영유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며 방문 자제를 요청하고 있다. (인터넷)

우리도 대마도 한국 땅 주장 가면 안 된다? 새해 예산안서 독도 예산 누락...

끊이지 않는 날치기 예산' 논란(2010.12.22.)
지난 8일 여야간 극한 대치 속에 본회의를 통과한 새해 예산안에서 독도 관련 예산이 누락된 것은 해당 상임위원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당초 예산안에 포함시키지 못한 채 예산안이 본회의에 넘겨졌기 때문이다.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폭력사태까지 벌어지면서도 일부 여야 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 예산을 챙긴 반면 복지 관련 예산은 누락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독도 예산 누락으로 인해 정치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요약)

독도 지키기 서명운동 내용

1. 나는 나라를 위해 독도지킴이가 되었습니다 (서명만 하고 노력 안하면 소용없다)
 2. 독도수호 참여 100만인 서명운동 (서명만 하고 노력 안하면 소용없다)
 3. 독도 연구를 많이 하고 사람이 많이 살게 하도록 하자.
- (서명 많이 하면 정부가 영구적으로 사람이 많이 살도록 할 것이다)
위의 3가지 내용을 서명용지 상단에 한줄씩 쓰고 서명을 많이 받으면 독도가 지켜질까요? 1번 내용과 2번 내용은 서명을 많이 해도 독도가 지켜질 수 없다고 저는 생각 합니다. 3번 내용은 서명을 많이 하면 정부가 연구를 하게 하고 관광지를 만들면 이론과 논리로 일본을 이길 수 있고 하루 1천명 정도의 관광객에게 우리나라 사람이 장사를 해서 살면 한국인의 유인도가 되어서 국제사회가 한국 땅으로 인정을 할 것입니다. 일본은 남의 땅을 노리는 나쁜 나라가 됩니다. 독도에 마을이 생겨야 합니다. (독도사수연합회 홈페이지에 자세한 내용을 보시고 서명운동 합시다.)



케이앤케이기획
중.합.광.고.대.행.사

☎ 051) 851-9001 ☎ 051) 980-509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404-21 2F

실내인테리어 · 롤스크린간판 · 현수막
명함 · 전단지 · 판촉물 · 개업 이벤트행사

독도사수연합회 후원사께 감사드립니다

www.wowani.co.kr

animated creative design
animated creative space design
animated creative character
animated creative signage

ANIPARK
animated creatures
애니파크 디자인

Design office
부산진구 가이3동 257-7 부산진우체국 4층 >>> TEL 051-895-3663 FAX 051-895-7715
제작+공방 / 부산진구 초읍동 529-107 >>> TEL 051-818-4346 FAX 051-818-4348

기술이사 권 경 렬
mobile 010-3870-6228



SEOWHA HITECH
세화이테크

대표 이 덕 준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사동 105-22번지
TEL : 070-7659-7118 / FAX : 051-522-7118
H · P : 010-9901-2853
E-mail : jinsung711@naver.com / http://blog.net/seowha

獨島사랑 캐릭터 研究所

뉴 동부산 고속 관광

DS5NOG 박 용 규

HP:011-863-4220

최선을다하는
수악여행전문 뉴부산 고속 관광 박용규 DS5NOG



신우정공

부산시 금정구 회동 211-4
TEL. 051) 518 - 8839
FAX. 051) 558 - 8818
H P. 011 - 558 - 4198
E - mail : sw8818@chol.com (coll sing : HL5JQN)

대표 신재식 (용기)

- 사출금형
- 건축자재
- 특수금형
- 합마톤 난간대
- 나이케스팅
- 배란다
- 금형설계
- 계단.핸드레일.관련부품

편집을마치면서

모든 것은 주인이 지켜야 하는 것은 아주 당연합니다. 전 국민이 주인이지만 지키려 노력하는 분은 너무나 적습니다. 독도 주인 전부에 비하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빼앗기면 안 된다는 마음만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만으로 독도를 지킬 수 없습니다. 노력과 행동이 필요 합니다. 독도의 주인들이 매월 자동입금 천원을 해주신다면 아주 큰 힘이 될 것이며, 카페나 홈페이지에 활동을 하셔도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이 소식지에 있는 내용은 인터넷에 있습니다. 우편번호:609-809부산광역시금정구금사동105-22번지전화:070-7659-7118. 전송:051-522-7118. 법인통장 우체국 601229-01-002084 예금주: 독도사수연합회 손전화 010-6504-6510 독도에 관심이 없으면 읽지도 않는데 이 소식지를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